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경제안보 Review

경제안보 분석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경제안보 현안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경제안보 연구동향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中, 희토류 공급망 관리 정책 동향
- 美, 해양·물류·조선 분야 301조 조사 관련 동향
- 中, 무역규제 강화(신규 대미 보복조치) 관련 동향
- 美, 구리 관련 232조 조사 동향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목차

I. 경제안보 분석

김단비 전문관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01

1. 배경
2. 중국 반도체 지원 정책과 기업 동향
3. 결론 및 시사점

II. 경제안보 현안

황지현 전문관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10

1. 개요
2.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세부 내용
3.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의 영향 검토 및 시사점

III. 경제안보 연구동향

유지영 선임전문관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17

* Stephen G. Brooks and Ben A. Vagle (2025) “The Real China Trump Card – The Hawk’s Case Against Decoupling”, Foreign Affairs (February 20, 2025).

1. 요지
2. 중국은 포퓰킨(Potemkin) 경제 대국
3.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4. 디커플링 정책의 활용은 타이밍이 중요
5. 결론

IV. EWS 공급망/에너지 동향

- 中, 희토류 공급망 관리 정책 동향
- 美, 해양·물류·조선 분야 301조 조사 관련 동향
- 中, 무역규제 강화(신규 대미 보복조치) 관련 동향
- 美, 구리 관련 232조 조사 동향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동향과 경제안보적 시사점

김단비 전문관

요약

■ 중국의 반도체 정책 및 기업 동향

- (정책)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 자급률 확대 ▲첨단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이라는 2-Track 전략 구사중
 - (레거시 반도체)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28nm 이상)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여, 2023년 글로벌 생산량의 33%를 점유(2015년 이후 연평균 12.1% 성장)
 - (첨단반도체) 2024년 475억 달러 규모(약 68조원)의 3기 자금이 조성되어 첨단반도체 분야(첨단 반도체 제조, 도구, AI칩, HBM 등)에 투자 예정
- (기업 동향) 中 메모리 업체 CXMT는 중·저사양 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며, HBM 등 고사양 반도체의 양산 계획 중
 - (생산역량 확대) CXMT는 중·저가 레거시 D램을 중심으로 생산역량 확대 중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생산능력 점유율 : 2020년 0% → 2023년 5% → 2025년 15%(전망))
 - (고사양 반도체 분야) ▲LPDDR5 등 고사양 DRAM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반도체 양산도 확대 예정

■ 분석 및 시사점

- (중국의 추격 대비) CXMT의 ▲가격 경쟁력 기반 저사양 반도체 점유율 확대 ▲HBM 및 고사양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시장 경쟁 확대에 대비 필요
 - (첨단 분야 초격차 유지) 우리 기업이 기술 우위를 보유한 HBM 등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기술 보호) 국내 반도체 업체 인력을 통한 첨단반도체 기술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규제 정책 강화 필요
-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주시
 - (CXMT 대상 수출통제 강화) 미 행정부가 CXMT에 대한 추가 제재 시행 시, CXMT의 신규 생산시설 확장 등에 일부 제약 전망

※ CXMT는 미 상무부의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에서 제외되었으나, 美 상원은 상무부 장관 지명자에 CXMT의 Entity List 등재 등을 촉구하는 서한 전달(2.3.), 최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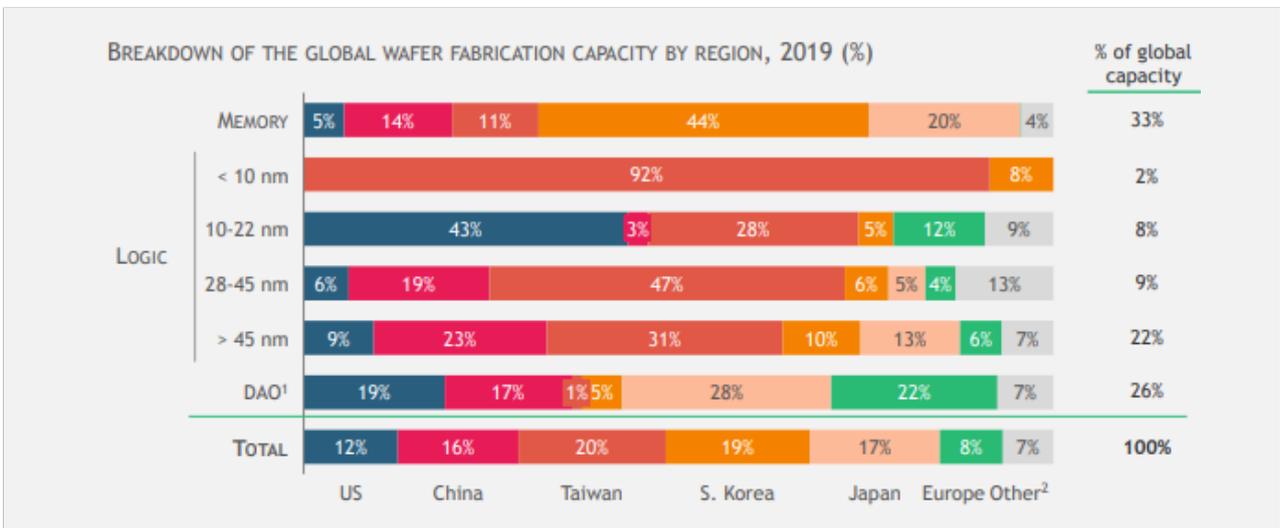
1. 배경

■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중국 정부의 기술자립화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글로벌 반도체 분업 구조의 변화를 야기 중

● (기존 분업 구조)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미국, 유럽, 동아시아 간 분업화된 생산 체계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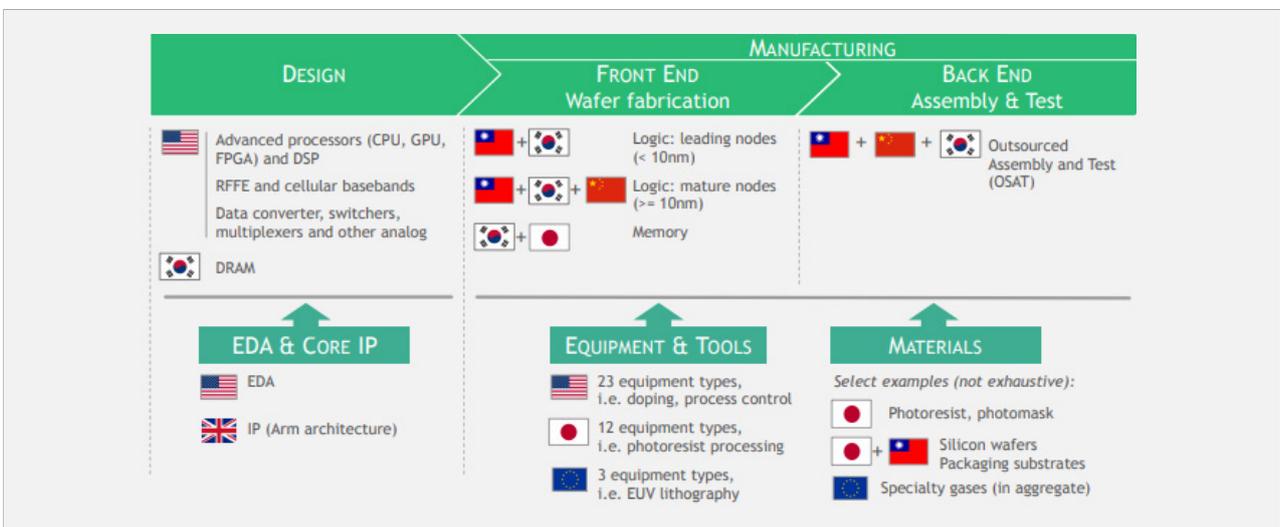
- 미국은 EDA 및 핵심 IP, 유럽은 EUV 등 핵심장비, 일본은 재료와 장비를 공급하고 대만 (첨단반도체)과 한국(메모리, 첨단반도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생산 체계를 유지

[반도체 기술 및 공정별 글로벌 생산능력(capacity) 분포]



자료: BCG(2021), p.6

[반도체 생산 단계별 글로벌 분포]



자료: BCG(2021), p.4

● (중국의 반도체 수급) 기존 글로벌 생산 체계 내에서 중국은 자국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을 대만과 한국 등에서 수입에 의존해왔음

- 중국은 세계 IT 기기의 생산기지 및 소비 대국으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30%를 차지하나 2023년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은 글로벌 14% 수준(EE Times, 2023.4)

※ 2023년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44%

● (중국의 약진) 최근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전반적인 반도체 기술력 및 산업 생태계 개선 ▲생산능력(capacity) 확대를 통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동시 발전 중

- (기술력 개선) 중국은 기존 글로벌 반도체 생산 체계에서 일부 후공정(OSAT) 분야에서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반도체 전 영역(설계, 장비, 제조, 패키징)에서 기술력 개선이 가시화(표 참조)

- (규모의 경제 확보)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28nm 이상)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여, 2023년 글로벌 생산량의 33%를 점유(SIA, 2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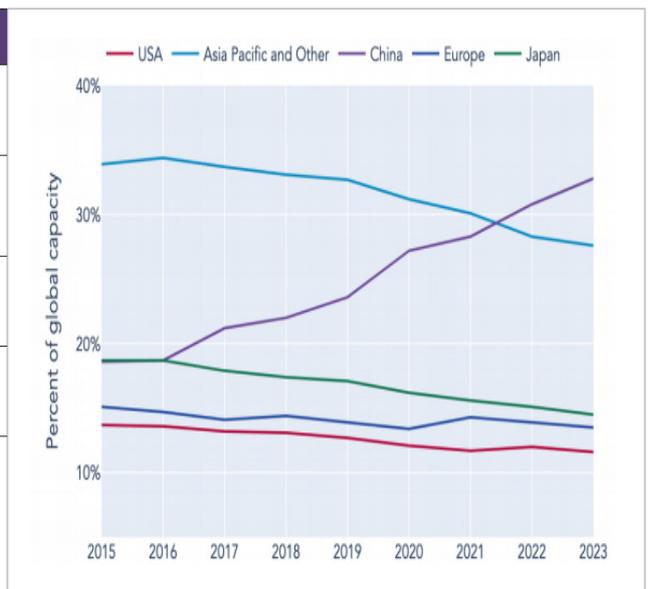
- (전망) 중국 기업의 성장 추세 감안시, 향후 3~5년 이내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생산능력 약 50%를 중국 반도체 기업이 점유할 것으로 예상(SIA, 2025.2)

※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제조 용량은 연평균 12.1% 성장 / 글로벌 레거시 반도체 수요는 2015~2023년 동안 연평균 2.9% 성장하여 동 기간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하락 추세 (그림 참조)

[반도체 분야별 중국 기업 기술 동향]

[레거시 반도체 생산능력(capacity) 점유율 변화]

| 분야 | 동향 |
|-------|--|
| 설계 | 중국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수는 2022년 기준 2,810개로 한국(약 130개)의 20배 이상 |
| 파운드리 |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중 기업(SMIC, 화홍반도체, 넥스칩) |
| 메모리 | CXMT는 DRAM 반도체 양산 성공 및 양산 규모 지속 확대 |
| 장비 | SMEEE는 세계 세 번째 28nm DUV 노광기 국산화 성공을 발표(2023.8) |
| 기초 기술 | 최근 국내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제외한 반도체 분야 4개의 전략기술(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센싱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 |



자료: 언론 및 KISTEP(2025)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 SIA(2025.2), p.8 재인용

2. 중국 반도체 지원 정책과 기업 동향

■ (중국 정책 동향) 中 정부는 기금조성을 통한 직접 보조금과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 중

- (반도체 투자기금) 2024년 475억 달러 규모(약 68조원)의 3기 자금이 조성되어 첨단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 예정(기금조성 후 5년 이내 투자 완료 예정)
 - 2014년 이후 반도체 투자기금으로 투자된 누적 투자액은 약 477억 달러(68조 원)에 달하며, 17개 지방 정부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약 694억 달러(100조 원)에 달하는 별도 자본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SIA, 2025.2)
 - 2024년 조성된 3기 반도체 기금은 첨단반도체 제조 기술, 소재 및 EDA 도구, AI 칩과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지원 예정

[중국 반도체 펀드 개요]

| 구분 | 규모 | 주력 투자 분야 |
|---------------|---------|--|
| 1기(2014-2019) | 193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의 약 55%가 반도체 제조 분야에 투입되었으며, 그 중 89%가 레거시 반도체 제조에 투자 • 반도체 회사에 총 58개의 직접 투자 및 33개의 금융 회사(금융 리스 회사, 지방 국가 기금, 민간 기금 포함)에 자금을 지원 |
| 2기(2019-2024) | 284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회사에 총 63건의 직접 투자 진행 • 레거시 반도체 제조의 전공정 분야와 포토레지스트 및 기판과 같은 반도체 소재의 개발 지원 • 레거시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 강화에 노력 집중 |
| 3기(2024-) | 475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투자 진행 전이나, 첨단반도체 제조 기술, 소재 및 EDA 도구 등 우선 지원 예정 • AI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추가 지원 예정 • 5년 이내 자금 투자 완료 예정 |

자료: SIA(2025.2)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기타 간접 지원) 토지, 공공 서비스, 장비 등 지방 정부 차원의 간접 지원 추가 제공
 - (토지, 공공 서비스 및 장비 보조금) 지방 정부는 종종 토지 보조금, 공공 서비스, 반도체 회사에 대한 장비 임대 등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제공
- (커창반) 중국판 나스닥인 커창반을 통한 신생 반도체 기업도 대규모 자금 수혈 가능
 - 2024년 6월 기준 102개의 반도체 회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약 240조원, 커창반 전체 시가총액의 약 31.7%)

■ (중국 반도체 산업 동향) 중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하고, 해당 제품이 중국 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형성 중

- (중국 정부 정책) 중국은 단기적으로 레거시의 국산화 및 사용 촉진을 추진하는 동시에, 막대한 정책 자금 투입을 통한 첨단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이라는 2-Track 전략을 구사중
 - (레거시 반도체) 최근 중국 언론(高科學)에 따르면, 28nm 칩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31%를 차지하는 등 중국 기업이 빠르게 시장점유율 확대 중
 - 특히, 스마트폰용 첨단 칩과 달리 산업용, 자동차용 반도체의 경우 96% 이상이 레거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시장에서 중국의 자급률과 글로벌 생산능력이 확대될 전망
 - (자국산 사용 우대 정책) 중국 과기부와 공업정보화부가 2020년 9월에 설립한 중국 자동차 반도체 산업혁신 전략연합(CACIISA)은 최근 200개 자동차 칩 공급업체의 1,800개 제품이 포함된 중국 반도체 공급업체 화이트리스트를 제작하여 자국 기업으로만 구성된 반도체 공급망 유도 (SIA, 2025.2)
 - (자체 표준 개발) 2024년 1월 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까지 30개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 신뢰성, 전자기 호환성, 운영 및 정보 보안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 70개 이상의 관련 표준을 개발할 계획

■ (기업 동향) 최근 중·저가 DRAM 시장에서 중국 기업(CXMT)의 점유율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기존 메모리 시장 과점체제(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변화중

- (자금력 기반 공격적 시설투자) 2016년 창립된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는 2017년 첫 번째 제조 공장 착공(허페이 Fab A1) 이후 대규모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허페이, 베이징 등에 빠르게 공장 증설
 - CXMT의 설비투자액은 2018년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73억 달러 (약 10조 4천억 원)로 6년 만에 약 6배 증가(전자신문, 2025.3)
- (가격 우위 기반 점유율 확장) CXMT는 중·저가 D램을 중심으로 생산역량을 빠른 속도로 확대 중이며, 2025년 글로벌 DRAM 생산능력의 15% 확보 전망
 - (주력 제품) 중급형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에 사용되는 DDR4, LPDDR4X, DDR4 모듈 등 중·저사양 DRAM이 주력 모델
 - 2020년 0%였던 CXMT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현재 양산 계획(월 30만 웨이퍼 생산) 고려시 15%까지 확대 전망
 - 중·저사양 반도체의 낮은 부가가치로 인해 후발주자인 중국 반도체 기업의 사업성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저가 반도체 시장을 잠식중

※ 中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가격 대비 10~15% 저렴한 수준(Nikkei Asia, 2025.3.)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의 주요 연역]

| 시기 | 주요 내용 |
|---------|--|
| 2016 | CXMT 설립 및 DRAM 제조 프로젝트 1단계 가동(허페이시에서 설립자금의 75% 부담) |
| 2017.03 | 저장성 허페이 Fab A1 건설 착공 |
| 2018.01 | 허페이 Fab A1에서 건설 완료 및 장비 이전 |
| 2018.07 | 8Gb DDR4 엔지니어링 샘플 검증 / 웨이퍼 및 시제품 생산 |
| 2019.05 | DDR4 제품 테스트 성공 |
| 2019.09 | CXMT가 세계 제조 컨벤션에서 양산을 위한 8Gb DDR4 발표 |
| 2019.11 | CXMT가 첫 수주 및 제품 판매 시작 |
| 2020.06 | CXMT 베이징 DRAM 1단계(Fab C1) 프로젝트 시작 |
| 2021.12 | 베이징 Fab C2 건설 시작 |
| 2022.01 | Fab C1 시범 생산라인 가동 시작 |
| 2022.06 | Fab A2(허페이) 건설 완료 |
| 2023.11 | LPDDR5 시리즈 제품 공식 출시 및 공격적 생산 확대 (웨이퍼 생산량 : 2022년 월 70,000장, 2023년 월 120,000장, 2024년 월 200,000장) |
| 2025 | 신규 상하이 공장 건설 추진중(월 10만 장 추가 생산 가능 전망) |

자료: CXMT 홈페이지 및 언론을 기반으로 재구성

- (고사양 반도체 분야) 이와 동시에 ▲LPDDR5 등 고사양 DRAM 생산 개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 생산 등 첨단반도체에서도 양산 확대 계획
 - (고사양 반도체 생산 개시) CXMT는 2024년 컴퓨터 서버와 휴대폰 등에 주로 사용되는 DDR5 생산을 개시(업계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가 2020년 상용화한 공정)
 - (HBM) CXMT는 향후 신규 상하이 공장, 허페이 공장 등에서 HBM2* 양산을 위한 생산시설 확장 예정(전자신문, 2024.8.5)

* 이는 업계 선두주자인 삼성과 SK hynix가 준비 중인 HBM4에 2세대 뒤진 수준

3. 결론 및 시사점

- (중국 정부 정책 변화 주시) 향후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지속 가능 여부는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주요 변수
 - 현재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부가가치 레거시 반도체의 생산 용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 관련 부정적 평가*가 있는 만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 금년도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수출 둔화 등 어려움 속에 4% 초중반 성장 전망

■ (중국의 추격 대비) CXMT의 ▲가격 경쟁력 기반 저사양 반도체 점유율 확대 ▲HBM 및 고사양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따른 시장 경쟁 확대에 대비 필요

- (첨단 분야 초격차 유지) 우리 기업이 기술 우위를 보유한 HBM 등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CXMT의 레거시 DRAM 제품의 대량생산과 저가판매에 대응하여, HBM 등 첨단 제품의 시장점유율 유지가 중요

- 관련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 인력을 통한 첨단반도체 기술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정책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주시

- (CXMT 대상 수출통제 강화) 미 행정부가 CXMT에 대한 추가 제재 시행 시, CXMT의 신규 생산시설 확장 등에 일부 제약 전망

- ▲美 상원은 상무부 장관 지명자에 CXMT의 Entity List 등재 등을 촉구하는 서한 전달(2.3)
- ▲바이든 행정부는 정권 인계 과정에서 트럼프 국가안보위원회에 CXMT가 미국 기술을 구매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우선 과제로 요청

- ▲미 국방부는 최근 군사 중국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 CXMT를 포함(1.8) / 목록 등재에 따른 즉각적인 제재나 통제 조치는 없으나, 평판 훼손에 따른 투자와 협력 억제 가능성과 행정부의 후속 조치 가능성 증가

- (레거시 반도체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 중국의 반도체 시장점유율 확대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추가 견제 정책 가능성에도 주목

- 美 상무부는 2024년 12월 미국 기업의 중국 레거시 반도체 조달 현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2024년 1월 시행)하는 등, 미 행정부 내 중국의 반도체 생산 확대에 따른 레거시 반도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상무부의 조사결과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파운드리 및 수요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중국산 반도체 사용 의무화 정책이 결부되어 향후 레거시 반도체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 조사 결과는 미국 레거시 반도체 수요기업 38%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 중이며, 중국 파운드리의 생산능력 확대가 반도체 가격 하락 유발 중이라고 평가

참고문헌

- Andreas Schumacher. (2024.12.19.). China's Mature Semiconductor Overcapacity: Does It Exist and Does It Matter?. CSIS.
- Arrian EBRAHIMI. (2024.10.7), Chinese Mature Node Overcapacity Unfounded Fears, IFRI
- Bureau of Industry & Security. (2024.12.6.), BIS Publishes Assessment on the Use of Mature-Node Chips.
- BCG. (2021.4.6), Strengthening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 in an Uncertain Era
- Caroline Gabriel and Michela Venturelli(2024.4), China's semiconductor ecosystem: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EETimes. (2023.4). China, CHIPS and Supply Chain Disruption
- Financial Times. (2025.2.10.). Chinese chip champion's 'snowballing' growth threatens Korean dominance, <https://www.ft.com/content/b6f89d2b-5fe2-4a8f-a7cc-c75989e27544>
- Trend Force. (2024.8.23). Samsung and SK hynix's China Revenue Doubled in 1H24, Reportedly Driven by Semiconductor and HBM Demand
-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25.2.5.). Request for Public Comments: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argeting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for Dominance. <https://www.semiconductors.org/wp-content/uploads/2025/02/Final-SIA-Comments-on-USTR-301-on-Chinese-Legacy-Chips59.pdf>
- Nikkei Asia. (2025.3.5.). China makes inroads in DRAM chips in challenge to Samsung and Micron. <https://asia.nikkei.com/Business/Technology/Tech-Asia/China-makes-inroads-in-DRAM-chips-in-challenge-to-Samsung-and-Micron>
- Nikkei Asia. (2025.1.15.). China makes inroads in DRAM chips in challenge to Samsung and Micron.
- YOLE Group. (2023.5.10.). Semiconductor memory: China's ambition shows no signs of slowing down. <https://www.yolegroup.com/strategy-insights/semiconductor-memory-chinas-ambition-shows-no-signs-of-slowing-down/>
- SK증권 리서치센터. (2024.8). 2025년 메모리 투자 무엇을 봐야 할까요?
- 김단비. (2023.10).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추진 현황과 시사점. 경제안보리뷰 23-9호.
- 글로벌이코노믹. (2025.2.7.). 中 반도체, 美 제재 뚫고 수출 1조 위안 돌파...자립률 25% '경중'.
- 전자신문. (2024.8.5.). 中 창신메모리, HBM 자립속도전, 5만장 이상 양산 능력 구축.
- CXMT 웹사이트. <https://www.cxmt.com/news-media.html>

저자 소개

김단비 | dbikim22@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첨단·신흥기술, 공급망, 미중기술경쟁이 있다. 주요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탐색과 성장동력 정책의 전환- 글로벌 경쟁 분석 및 국가 포지셔닝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R&D 전략의 전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9)이 있다.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및 영향

황지현 전문관

1. 개요

-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2.10)

* 대통령의 행정조치(executive action) 중 하나로, 행정조치는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 지침(memorandum) ▲ 포고령(proclamation)으로 분류

- 2018년 3월부터 부과되어온 ▲ 철강 25% ▲ 알루미늄 10%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강화하여 철강·알루미늄 모두 25%의 관세율을 일괄 적용
 - 기존에 별도 협상으로 적용된 면제·예외 조치를 철회하여 한국,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영국 등에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

2.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조치 세부 내용

- 철강 232조 관세 면제·예외 조치 철회

- 관세 면제, 쿼터 합의, 저율관세할당(TRQ) 등 기존 232조 관세의 면제·예외 조치를 무효화하고 철강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일괄 부과

[주요국 기존 철강 232조 관세 면제·예외 조치 현황]

| | 국가 | 내용 |
|-------------|---------|--------------------|
| 관세 면제 | 캐나다·멕시코 | 대체 협정(USMCA)으로 무관세 |
| | 우크라이나 | 임시 면제 조치로 무관세 |
| 쿼터 합의 | 한국 | 263만t까지 무관세 |
| | 브라질 | 419만t까지 무관세 |
| | 아르헨티나 | 18만t까지 무관세 |
| 저율관세할당(TRQ) | EU | 330만t까지 저율관세할당 |
| | 일본 | 125만t까지 저율관세할당 |
| | 영국 | 50만t까지 저율관세할당 |

자료: 한아름(2025) 등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알루미늄 232조 관세 면제·예외 철회 및 관세율 인상

- 기존 알루미늄 232조 관세의 면제·예외 조치를 무효화하고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현행 10% 관세율을 25%로 인상

[주요국 기존 알루미늄 232조 관세 면제·예외 조치 현황]

| | 국가 | 내용 |
|-------------|---------|--------------------|
| 관세 면제 | 캐나다·멕시코 | 대체 협정(USMCA)으로 무관세 |
| 쿼터 합의 | 아르헨티나 | 18만t까지 무관세 |
| 저울관세할당(TRQ) | 영국 | 2.2만t까지 저울관세할당 |

자료: 한아름(2025) 등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대상품목 발표

- 관세 포고문에 대한 부속서를 통해 ▲철강 파생제품 167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123개를 관세 대상품목에 추가(2.18)
 - 가공 수출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으로 생산한 하류 제품 및 완제품도 232조 관세 대상 품목으로 확대

3.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의 영향 검토 및 시사점

■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시장 영향

- 2024년 美 철강 수입의 82%가 캐나다 등 관세 면제·예외국으로부터 수입된바, 이들 국가에 25% 관세 일괄 부과 시 美 내 철강 가격의 단기적 상승은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으로부터 미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현지 생산 및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 존재
 - ※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철강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상승 /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는 미국 내 제철소 건설 및 현지 투자 확대를 검토 중
 - 한편, 1차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완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후방 산업 및 공급망에 대한 기업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이 미국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다수 제기
 - ※ 특히 자동차·건설·조선 등 철강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후방 산업 전반으로의 관세 영향으로 美 경제에 광범위한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 다대(CFR,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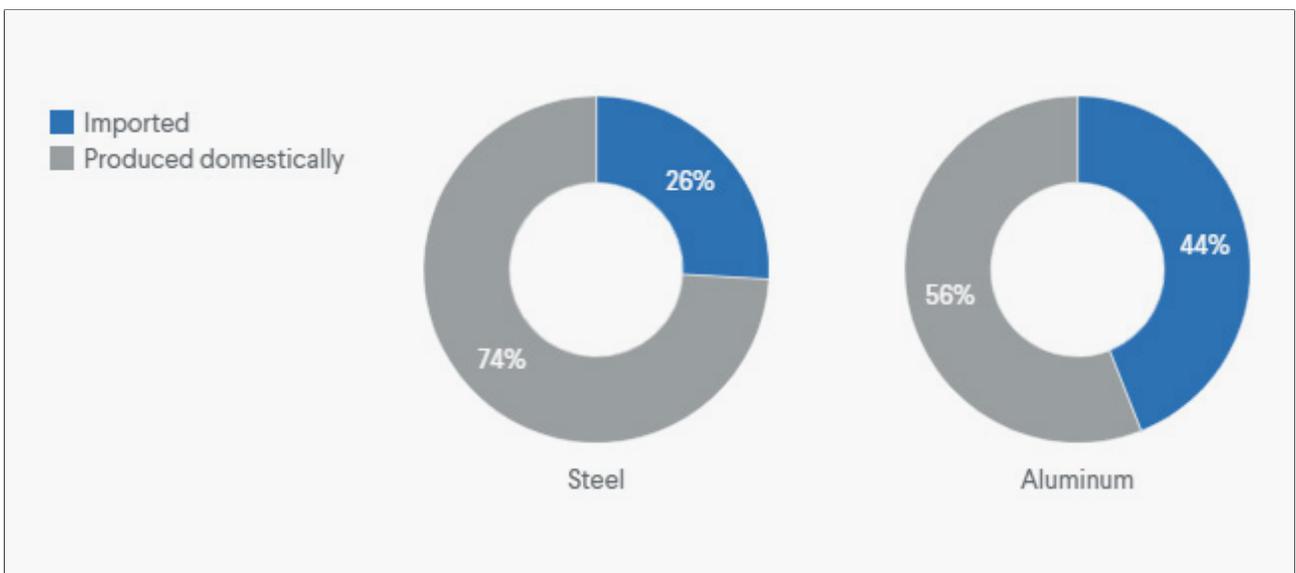
[2024년 미국의 철강 수입국 및 수입량]

| | 국가 | 수입량(천t) | 비중(%) |
|----|------|---------|-------|
| 1 | 캐나다 | 5,092 | 19.4 |
| 2 | 브라질 | 4,081 | 15.6 |
| 3 | 멕시코 | 3,195 | 12.2 |
| 4 | 한국 | 2,548 | 9.7 |
| 5 | 베트남 | 1,237 | 4.7 |
| 6 | 일본 | 1,071 | 4.1 |
| 7 | 독일 | 974 | 3.7 |
| 8 | 대만 | 918 | 3.5 |
| 9 | 네덜란드 | 557 | 2.1 |
| 10 | 중국 | 470 | 1.8 |
| | 전체 | 26,217 | 100 |

자료: KOTRA(2025)에서 재인용

- 미국은 자국 내 알루미늄 수요의 절반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2024년 미국의 알루미늄 제련소 가동률은 52%에 불과하는 등 美 알루미늄 산업은 철강에 비해 대외 의존도가 높아 관세 조치의 직접적·실질적 영향이 예상
- 알루미늄은 철강 대비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미흡하여 관세 인상이 수입 감소 및 내수 가격의 직접적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 다대(Hargreaves, 2025.2.18.)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의존도]



자료: CFR(2025)

■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시장 영향

- 이번 조치로 232조 관세 면제 및 예외 조치가 철회된 美 주요 동맹·협력국의 관세 타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對美 철강·알루미늄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
 - 베트남, 대만 등 관세 既부과국이 상대적 수출 경쟁력을 획득하고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 기존 주요 수출국의 미국向 수출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
- 철강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생산 확대 기조로 인해 美 수입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며 미국 외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철강 수출국 간 경쟁 심화 전망
 -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관세장벽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산업의 리스크 요인이 더욱 증대
 - 한편, 미국 내 자체 생산 기반이 불충분한 고품질 철강 등의 지속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 등의 주요 특수강 생산국의 수출 경쟁력 유지 노력이 중요
- 알루미늄 산업의 경우 美 알루미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관세 피해가 다대할 전망으로 한국·UAE 등의 對美 수출 확대 기회도 관찰
 - 캐나다는 USMCA 체결국으로 현재 미국向 알루미늄 수출시 무관세(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한국·UAE 등 2018년 232조 알루미늄 10% 관세가 이미 부과되어온 국가들에 비해 관세 인상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2024년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국 및 수입량]

| | 국가 | 수입량(천t) | 비중(%) |
|----|-------|---------|-------|
| 1 | 캐나다 | 3,153 | 58.1 |
| 2 | UAE | 347 | 6.4 |
| 3 | 중국 | 223 | 4.1 |
| 4 | 한국 | 214 | 3.9 |
| 5 | 바레인 | 201 | 3.7 |
| 6 | 아르헨티나 | 176 | 3.2 |
| 7 | 인도 | 160 | 2.9 |
| 8 | 호주 | 83 | 1.5 |
| 9 | 멕시코 | 81 | 1.5 |
| 10 | 오만 | 68 | 1.3 |
| | 전체 | 5,429 | 100 |

자료: KOTRA(2025)에서 재인용

- 최근 美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 조치 예고와 번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은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면서(3.6.), 향후 실제 관세 부과 및 협상 동향에 대한 주시 필요

* ▲수입 농산물에 대해 4.2일부터 관세 부과 계획 예고(3.3.)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 (USMCA 적용 품목) 4.2일까지 면제(3.6.) 등

참고문헌

- 한아름. (2025). 美,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조치 강화. 통상이슈브리프. 한국무역협회.
- 황유선 & 박미정. (2025).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주요내용 및 해외시각. 국제금융센터.
- kotra. (2025).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내용 및 기업반응. Global Issue Monitoring.
- 박영우. (2025.2.10.). 트럼프 25% 관세폭탄에…철강업계 비상 “美 공장 투자 서두를 것”.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927>.
- U.S. Geological Survey(USGS). (2025). Mineral commodities summaries 2025.
- Hargreaves, Libby. (2025.2.18.) Trump’s Steel and Aluminium Tariffs Shake Up Supply Chains. Supply Chain Digital. <https://www.supplychaindigital.com/supply-chain-risk-management/us-tariffs-on-metals-to-start-in-march>.
- O’Neil, Shannon K. & Huesa, Julia. (2025.2.14.). What Trump’s Aluminium and Steel Tariffs Will Mean, in Six Chart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CFR). <https://www.cfr.org/article/what-trumps-aluminium-and-steel-tariffs-will-mean-six-charts>.
- Sherman, Natalie. (2025.2.12.). Trump says no exemptions with metal tariffs to start in March.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360dz384n5o>.
- The White House. (2025.2.10.).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steel-into-the-united-states>.
- The White House. (2025.2.1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restores-section-232-tariffs>.

저자 소개

황지현 | jhhwang24@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주제는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배터리, 산업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국내 및 주요국 배터리 안전 관련 정책 동향(경제안보리뷰 18호, 2024),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산업 정책과제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22)”이 있다.

FA, “The Real China Trump Card” 요약

유지영 선임전문관

※ 원문: Stephen G. Brooks and Ben A. Vagle (2025) “The Real China Trump Card – The Hawk’s Case Against Decoupling”, Foreign Affairs (February 20, 2025).

1. 요지

- 미국이 평시(平時)에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위기 시 중국의 적대적 공격성을 억제하는 데에 활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정책 도구의 힘을 잃는 것
 -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필요한 강력한 경제적 단절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평시에는 미국이 가진 협상의 지렛대를 잘 비축하고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

2. 중국은 포툼킨(Potemkin)* 경제 대국

* 포툼킨 마을(Potemkin village)에 관한 이야기에 빗대어 경제학 또는 정치학에서 실제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표면적으로 과장·조작된 수치, 묘사, 주장 등을 일컫는 수사로 활용

-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 대비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 역량은 미약
- (中 GDP) 중국의 GDP가 미화 2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도는 저조
 - 위성 이미지를 통해 지리적 공간 대비 빛의 밀집도 분석을 통해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는 중국의 GDP가 공식 통계보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측
 -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약 1/3 정도 부풀려졌다는 비판도 존재
 - 저자에 따르면, 리커창 전 중국 총리(2013-2023)가 중국 정부의 GDP 수치는 믿을 수 없다고 2007년에 직접 발언한 바 있으며, 로듐(Rhodium) 컨설팅 그룹에서 십 수 년간 일한 중국 담당자들은 2019년 면담에서 중국 고위 인사 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의 GDP 통계를 신뢰한다고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언급
- 이와 같은 통계 부풀리기는 중국 경제 성장의 단일 모델 때문에 가능
 - 중공업 부문에의 투자가 지난 30년간 중국 GDP 성장 견인의 약 40%를 차지했는데, 실제 소비로 인한 생산 효과(productive effect)는 중국 경제에 부재

- 일례로, 베이징의 30,000마일 초고속 철도 네트워크 사업은 대부분 노선의 실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화 1조 달러 상당의 부채를 통해 해당 투자를 진행중. 낭비된 투자 규모가 적어도 현재의 GDP 부풀리기에는 효과적이기에 지속 추진 추정 (저자가 WSJ의 Brian Spegele 기자의 취재 내용 인용)

■ 실제 경제적 힘을 측정하는 지표로 GDP보다 기업의 수익이 더 적합

- 중국 기업들의 수익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추정하는 것이 더 적절
 - 중국 제조업의 생산량은 한 국가에만 귀속되지 않고 세계화된 생산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산물임을 상기할 필요성
 - 한 국가의 경제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국내 생산량보다 해당 국가의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 가능
 -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 총수익의 38%를 벌어들이며, 美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총 35%의 수익을 창출 / 그에 비해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수익은 전 세계 기업의 총수익 중 16%를 차지
 - 포브스(Forbes) 선정 세계 2,000대 기업이 속한 27개 산업 중 미국 기업들은 20개 부문에서 앞서고 중국 기업들은 3개 산업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7개 부문 중 3개 부문의 선도국들은 美 동맹국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항공·우주, 제약·바이오, 미디어, 반도체, 생필품 부문에서 모두 top 5를 기록
 - 특히 첨단 분야인 항공·우주, 제약·바이오,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 기업들은 55%의 수익을, 美 동맹국은 29%의 수익을 창출 / 반면, 중국 기업들은 동일 부문에서 6%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의 수익은 은행, 건설, 보험 산업과 같이 국내 시장 수요에 집중
- GDP에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국 및 동맹국 기업들의 생산량도 포함되므로 실제 중국의 영향력 대비 지표의 수치가 크게 보이는 효과도 고려할 필요성
 - 일례로, 아이폰 14는 대부분 모두 중국에서 조립되어 재수출 되기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아이폰 14를 중국산 수출품으로 간주하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되고 대만 기업이 소유한 공장에서 조립되어, 해당 완제품 가치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4%만이 해당
 - * 아이폰 14 생산에 있어 부가가치 기준의 기여도는 미국이 32%, 한국이 25%, 일본 11%, 대만 7%인 것으로 알려짐
 -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 경제활동을 축소·중단 하거나 기업의 모국(母國)이 관련 규제를 시행한다면 중국 내 생산량은 현저하게 감소할 위험 다대

3.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 저자는 3가지 변수(▲대만의 글로벌 공급망 내 참여 또는 (중국 영향력으로 인한) 배제 ▲미국과 동맹국의 對中 교역 단절(cut off) 정도 ▲무역 교란이 가져오는 글로벌 공급망에의 여파)에 따라 총 1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모든 12개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불균형적이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
 - 단기적으로 중국의 피해는 미국보다 5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11배까지도 달할 것으로 예상
 - 단기적인 경제 교란의 여파는 시나리오에 따라 15-51% 상당의 중국 GDP가 영향을 받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
 - 미국이 해군을 활용하여 해양 수송로를 전면 봉쇄하는 경우, 중국 GDP의 39.9%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교역은 3.6%만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미국과 동맹국이 본격적인 디커플링 정책 추진 시 중국에 입힐 수 있는 피해가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막대하다는 주장
 - 장기적으로 새로운 균형으로의 성장 궤도를 국가들이 쫓는 시나리오를 전망했을 때에도 미국의 위치는 중국에 비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측
 - 중국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가동하는 외국 기업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어 왔는데 對中 경제 봉쇄로 외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경우, 중국 내 생산 감소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4. 디커플링 정책의 활용은 타이밍이 중요

- 미국의 중국 매파(China hawks)가 원하는 강경한 디커플링 정책은 중국이 영토 수정주의(territorial revisionist)를 실현 시에 적의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 중국을 세계 시장에서 단절하는 정책은 오로지 단 한 번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이를 평시에 남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
 - 소련과 달리 이미 글로벌 시장과 상당히 통합되어 있는 중국을 단절시켜 충격을 주는 방안은 상당히 강력한 무기 / 이는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보루로 구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
 - 선제적인 디커플링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평시에는 디리스크잉(de-risking)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
 - 디커플링에 따른 미국의 피해가 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약소할지라도, 美 동맹국들이 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입을 피해*가 상당할 수 있음을 상기 필요

* 저자는 독일이 미국의 2배, 일본이 3배, 호주는 5배, 한국은 7배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

- 진정한 중국의 디커플링을 위해서는 美 동맹국들의 협조와 동조가 필수적이므로, 장기적으로 美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평시에 그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

■ 적절한 타이밍 확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은 공동의 경제 전략 마련 필요

- 현재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조와 공조 등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경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맹국 간 공동의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
 - 저자는 정부 간 기구를 통해 공식적인 경제 동맹(economic alliance)의 구성을 제안
 - ▲필수 자원의 재고 비축 및 분배 방안 ▲재정 및 거시 정책 조정 방안 ▲비상시 적성국의 자산 몰수 및 분배 방안 ▲공동의 준비자산 보유 방안 ▲국방비에 대한 대체 기금 조성 방안 등을 해당 기구에서 모색 가능하다고 제안
 - 다만, 이러한 새로운 경제동맹이 현재 기합의된 안보동맹(e.g. NATO)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 → 굳건한 안보동맹의 유지와 동시에 경제동맹 체제를 함께 운영하여 동맹 간 협력을 보완하는 방식을 추구할 필요성 강조

5. 결론

- 방대한 분야에 걸친 對中 디커플링 정책 추진 시 미국의 특정 산업들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하므로 장기적인 경제안보 전략의 수립 및 대비가 필수적
 -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자원의 비축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취약한 산업·부문에 대한 장기 전략과 범부처 정책 조정 및 지원이 필요
- 미국이 디커플링 정책을 보류할수록 오히려 중국의 영토 수정주의 야망을 견제할 수 있음 → 선부른 강경 정책의 활용과 판단 착오는 오히려 美-中 간 재앙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성 강조

저자 소개

유지영 | jyoo25@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선임전문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 “국제수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관점 변화와 국제통상체제의 과제” 「국제경제법연구」(2024), “글로벌 AI 경쟁과 디지털 통상규범의 의의”, 「KISDI AI Outlook」,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2),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1), “Security Exceptions in the WTO System: Bridge or Bottle-neck for Trade and Secur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16) 등이 있다.

EWS 공급망/에너지 관련 모니터링 결과

(기간: 2025.2.19.~2025.3.5.)

※ 외교부는 핵심품목들의 글로벌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을 운영 중이며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별도 취합한 경제안보 관련 해외 동향을 종합하여 주요 동향 및 표로 정리

■ 中 정부, 희토류 관리방안 의견수렴(안)* 발표(2.19 / ~3.12 의견수렴 진행)

*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 관리 방법 / 희토류 제품정보 추적 관리 방법

●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총량 조절 ▲제품정보 추적 관리 방법 규정

- (총량 조절) ▲총량 관리체제, ▲할당 관리체제, ▲할당 기업 범위 ▲관련 부서 및 기업 책임 ▲지표 관리 ▲감독·관리 등 구체화
- (제품정보 추적) ▲적용 범위, ▲관리체제, ▲추적 시스템 운영 체제 및 기업 등록 방법, ▲감독·관리 방안 등 구체화

● 2024년 제정·시행된 희토류 관리조례(24.10)의 세부 실행지침

- 관리방안 시행시 中 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통제력* 강화 전망

* 관리 범위를 수입 희토류, 부산물까지 포함 / 개별기업 차원의 전 주기 희토류 제품정보 추적 시스템 도입 의무화로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의 체계적 이력 관리 기반 구축 전망

■ 美 USTR, 中의 해양·물류·조선 분야 中 불공정 관행 관련 대응조치(안) 제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 요청(2.21 / ~3.24 의견수렴 진행)

● (주요 내용) 中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수수료 부과 ▲美 선박 우대 ▲中 플랫폼 규제 ▲동맹국 협력 모색 등 제안

- (수수료) 中 해운업체* 및 中 선박 운영 또는 신규 주문 해운업체에 대해 美 항구 입항 수수료 부과

* 1척당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선박 용적당 최대 1,000 달러

- (美 선박 우대) 美 상품 해상 수출시 美 국적 선박 이용 의무화*

* 연도별 美 국적선 이용 의무 비율 상승 : 1년 1%, 2년 3%, 3년 5%, 7년 15% 이상

- (플랫폼 규제) 중국 해운 데이터 플랫폼(LOGINK) 美 항만 내 사용 제한

- (동맹국 협력) 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 中 관세위원회·상무부, 신규 대미 보복조치* 발표(3.4)

* 미국이 3.3일 발표한 대중 추가 관세 인상(기존 부과 10%+10%) 관련 대응조치

● ▲미국산 농축산품 관세 부과 ▲수출입 제재 대상 기업 추가 지정 등

- (관세) 미국산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 인상(품목별 각 10%, 15% 부과)

※ 이외 中 해관총서는 ▲미국 3개社の 대두 수입 중단 ▲미국산 목재 수입 중단 발표

- (이중용도품목) 15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추가 / 해당 기업 대상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 Leidos, Shield AI 등 미 방위 관련 기업 / 2025.1월에도 해당 목록에 美 기업 28개社 추가

- (기업 제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미국 10개 기업 추가 / 해당 기업의 對中 수출입 및 신규 투자 금지

● 中 정부의 특정 기업 대상* 수출입통제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바, 해당 리스트 업데이트 동향 등 관찰 필요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를 관리명단(기업 리스트) 기반으로 시행 / 바이오 관련 일루미나社 등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군사 관련 기업 外 기업 추가 추세

■ 트럼프 대통령, 구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평가 행정명령 발표(2.25)

● (배경) 단일 외국 생산자가 세계 구리 제련·정제 사업 장악(세계 제련의 50% 이상 장악 / 상위 5대 정제 시설 중 4곳 보유) → 美 국가안보에 위협

● (조치) 상무장관, 구리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에 관한 조사 실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 270일 내 대통령 앞 보고서 제출 의무

* 조사 대상 품목은 원석, 정련, 합금, 스크랩 등 주로 구리 생산 초기 업스트림 공정 품목

● (전망) ▲상무장관의 보고서 작성(270일) ▲대통령 조치 시행 결정(90일) 소요 시일 감안시, 실제 이행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 가능. 끝.

■ EWS 공급망

| 국가 | 일자 | 내용 |
|------|--|--|
| 중국 | 2.19. | [희토류] 공업신식화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에 대한 총량 조절 관리 방법」 및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방법」 초안 발표 |
| | 2.22. | [협력] 중국-국 제도, 무역·인프라·해저광물 협정 체결: 국 제도 해저광물량 약 67억 톤(코발트 2천 톤 및 대량의 니켈·구리·망간·철·희토류 등 생산 가능할 것으로 추정) |
| | 2.24. | [AI] 알리바바, 클라우드·AI 분야에 3년간 3,800억 위안(약 74조 9000억 원) 투자 계획 발표 : 역대 중국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 |
| | 2.25. | [AI 반도체] 화웨이, 자사 AI 가속기칩 수율을 1년 만에 20%→40%대로 향상 |
| | 2.25. | [자동차]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 제2기 공공분야 차량 전면 전동화 선행구 시범도시 10개 발표 : 공공분야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조치 |
| | 3.3. | [인프라] 바이트댄스, 태국 내 향후 5년간 데이터 센터 서비스에 88억 달러(약 12조 9천억원) 투자 계획 발표 |
| | 3.4. | [관세 등] 관세위원회 및 상무부, 신규 대미 보복조치 발표 : ▲미국산 농축산품에 대한 관세 인상 ▲10개 미국 기업의 대중 수출입 및 신규 투자 금지 ▲1개 기업에 대한 대중 수출 금지 ▲15개 미국 기업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등 |
| | 3.4. | [제재] 해관총서, 신규 대미 보복조치(2건) 발표: ▲미국산 대두 수입기업 3개사의 수입 자격 정지 및 ▲미국산 목재 수입 중단 조치 |
| | 3.4. | [관세] 상무부, 미국의 대중 관세 추가인상(10%+10%) 조치 WTO 제소 |
| | 3.4. | [제재] 상무부, 美 바이오기업 일루미나(Illumina) 등 15개 기업을 수출통제목록에 추가 등재 |
| 3.5. | [AI] 양회 개막 및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대규모 투자책 발표 전망 | |
| 미국 | 2.18. | [철강]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한국의 철강 우회수출 지적 |
| | 2.19. | [무역] 트럼프 대통령, 美·中 양국 무역 협상 가능성 언급 |
| | 2.21. | [조선] 무역대표부(USTR), 해운·물류·조선 분야 301조 조사 관련 대응조치 제시 및 의견제출 요청 |
| | 2.21. | [조선] 무역대표부(USTR), 中 조선 산업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성 언급 |
| | 2.21. | [투자] 백악관, 「미국 우선 투자 정책 각서(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발표 : (주요 내용) ▲對美 투자 촉진 ▲적대국의 對美 투자 제한 ▲미국의 對中 투자 제한 |
| | 2.25. | [무역구제] 의회, 무역구제법 강화 법안* 재발의 * 공정경쟁법 2.0(Leveling the Playing Field 2.0 Act) |
| | 2.25. | [무역]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 의원,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지위 철회 법안* 재발의 * 중국 무역관계 법안(China Trade Relations Act of 2025) |
| | 2.25. | [구리] 트럼프 대통령, 구리 232조 조사 지시 행정명령 서명 : 구리 수입이 美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美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 필요성 등 평가 목적 |
| | 2.26. | [광물] 주요 언론, ‘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초안 보도 * (원제) 재건투자펀드 규약 제정 양자 협정 / 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

| 국가 | 일자 | 내용 |
|------|--|--|
| 미국 | 2.27.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유예기간(~3.4.) 종료 후 對멕시코·캐나다에 4.2.부터 관세 부과 예정이라 발언 |
| | 2.27.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對美 수출품에 10% 추가관세 부과 발표 |
| | 2.28. | [광물] 트럼프 대통령-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광물협정 체결 |
| | 3.1. | [목재] 트럼프 대통령, 목재 232조 조사 지시 행정명령 서명 |
| | 3.4. | [농산물] 트럼프 대통령,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 4.2.부터 관세 부과 계획 언급 |
| | 3.4. | [조선] 행정부, 미국 조선업 강화 및 중국 견제 행정명령 준비 중 |
| | 3.4. | [항만] 블랙록 컨소시엄, 파나마운하 항만 운영지분 인수 |
| | 3.4. | [통신] 행정부, 스타링크에 인터넷 보조금 확대 추진: 美 국내 인터넷 인프라 확대를 위한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상 위성 인터넷 사업자 보조금 확대 예정 |
| | 3.5. | [경제안보]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련 사항 다수 언급 : ▲관세 ▲반도체 보조금 폐지 ▲알래스카 가스 개발 투자 ▲조선업 등 |
| 3.5. | [광물]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광물협정 서명 준비됐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언급 | |
| 3.6. | [반도체] 반도체법 수혜지역 양당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법 폐기 구상에 반발 | |
| 일본 | 2.7. | [AI] 소프트뱅크그룹, 오픈AI에 40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 발표 : 투자 성사 시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로 부상 |
| | 2.25. | [철강]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방향 일단 유지 방침 표명 |
| | 2.26. | [해저케이블] 정부, 국제 통신용 해저케이블의 국내 생산 및 설치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계획 |
| | 3.3. | [자동차] 혼다, 시빅(Civic)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지 이전 발표 : 차세대 모델의 멕시코 생산 계획 철회 및 인디애나 공장 생산 진행 결정 |
| | 3.7. | [경제안보] 일본-영국 첫 경제판 '2+2' 각료회의 개최 예정: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체 창설 합의 및 양국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논의 전망 |
| 대만 | 3.3. | [반도체] TSMC, 미국 애리조나주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 |
| | 2.18. | [관세] 경제부 무역구제위원회, 한국·중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 재심 결과 발표: 산업 피해 지속 가능성 있다고 판정 |
| EU | 2.20. | [반도체] 집행위,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에 따라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Infineon)의 독일 드레스덴시 반도체 제조 공장 신설에 9.2억 유로 보조금 지급 승인 |
| | 2.21. | [해저케이블] 집행위 및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해저케이블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 제안 |
| | 2.22. | [기술] 제2차 EU-인도 통상기술위원회(TTC) 개최 예정(2.28.) : ▲디지털 공공 인프라 협력 및 호환성 ▲주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글로벌 무역 이슈 관련 협력 논의 계획 |
| | 2.24. | [대러제재] 이사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 계기 제16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채택 발표 : 개인 48명 및 단체 35개 제재 지정 등 |
| | 2.24. | [핵심광물] 우크라이나에 천연자원 개발 협정 제안: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필요로 하는 30개 중요 자원 중 21개를 공급할 수 있다며 협정 제안 |

| 국가 | 일자 | 내용 |
|-------|-------|---|
| EU | 2.25. | [철강] 집행위, '철강 전략 대화' 출범(3.4.) 계획 발표 : 유럽 철강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보호 조치 식별 등 목표 |
| | 2.26. | [환경] 집행위,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 발표 : ▲저렴한 에너지 접근 ▲선도시장 창출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 ▲순환경제 ▲국제협력 ▲기술/일자리 등 6개 핵심분야 지원 방안 제시 |
| | 2.26. | [정책] 집행위, '지속가능성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공급망실사지침 ▲기업지속가능성 공시지침 ▲EU 친환경분류체계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한 규제 간소화 조치 제안 |
| | 2.28. | [공동성명] 집행위원단 인도 방문(2.27-28.) 관련 정상 간 공동성명 발표 : EU-인도 간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약속 |
| | 2.28. | [기술] 제2차 EU-인도 통상기술위원회(TTC) 개최(뉴델리, 2.28.) |
| | 3.5. | [자동차] 집행위, '유럽 자동차부문 산업 행동계획' 초안 발표 |
| 캐나다 | 3.2. | [광물] 천연자연부, 광물 탐사 투자세액공제 2년 연장 : 중국 의존도 축소 및 미국과 무역관계 개선을 통한 공급망 안정성 모색 시도로 풀이 |
| | 3.4. | [관세] 정부, 미국 상품에 21일 내 25% 관세 맞대응 조치 계획 발표 : 약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 / 약 300억 상당 제품부터 25% 관세 즉시 적용 |
| | 3.5. | [관세]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 협의 공식 요청 |
| 러시아 | 2.18. | [종전] 러시아-미국 정상 간 전화 통화(2.12.) 및 고위급회담(리야드, 2.18.)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 논의 진행 |
| 독일 | 2.14. | [안보] 뮌헨 안보회의 개최(2.14-16.) |
| | 2.19. | [교역] 독일 최대 교역국(2024년 기준), 8년 만에 중국(2,463억 유로)에서 미국(2,528억 유로)으로 교체 |
| 영국 | 2.24. | [대러제재] 외무부,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 맞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도운 러시아 기업·개인 107건 발표 |
| 우크라이나 | 2.24. | [전쟁]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 기념 'Support Ukraine 2025 Summit' 개최 |
| 멕시코 | 3.4. | [관세] 세인바움 대통령, 대미 보복조치 도입 대상 품목 등 발표 계획 |
| 싱가포르 | 3.3. | [반도체] 당국, 미국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재수출 되었을 가능성 제시 |
| 칠레 | 2.20. | [구리] 칠레 국영동공사 코델코(Codelco) 및 영국 광산 기업 앵글로아메리칸(Anglo American), 광산 공동 운영 MOU 체결 : 연간 12만톤 생산량 증가 전망 및 세계 4위 동광 지구 형성 기대 |
| | 2.25. | [정전] 칠레 전역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 칠레 북부 아리카주부터 남부 로스라고스주까지 전력 공급 중단 |
| | 3.3. | [인프라] 공공사업부(MOP), 칠레 산티아고 공항 확장 논의 진행 : 항공 교통량 증가에 제3활주로 및 제3터미널 추가 건설 계획 |
| 인도 | 2.19. | [FTA] 인도-카타르 FTA 체결 가능성 논의 |
| | 2.25. | [협정] 인도-영국, 자유무역협정(FTA)·양자간투자협정(BIT)·사회보장협정(SSA) 협상 공식 개시 |

| 국가 | 일자 | 내용 |
|-------|-------|---|
| 인도네시아 | 2.18. | [광업] 인니 하원, 광물·석탄법 개정안 가결 : 종교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광업 참여에 우선권 부여 등 광업 참여 기회 확대 |
| 필리핀 | 2.24. | [관세] 산업무역부, 수입산 시멘트 세이프가드 임시 보호관세 부과 |
| | 3.4. | [광업] 상원의장, 원광 수출금지 입법 관련 양원 합동 위원회 구성 및 공청회 개최 : 금·구리·니켈·철광석 등 수출 금지 입법 추진 |
| DR콩고 | 2.24. | [코발트] 전략광물시장 감독청, 과잉생산으로 코발트 수출 최소 4개월간 중단 |

■ 에너지

| 국가 | 일자 | 내용 |
|-------|-------|---|
| 미국 | 2.24. | [LNG] 국가 에너지 우위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미국 LNG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동력 역할 수행 기대 |
| | 2.24. | [에너지] 트럼프 대통령, 인도에 에너지 수입 확대 압박 |
| | 2.25. | [석유] 재무부·국무부, 이란산 석유를 중국 등에 수송한 개인·법인 제재 부과 |
| 일본 | 2.18. | [원자력] 정부,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 '원전 의존 저감' 문구 삭제 |
| EU | 2.21. | [LNG] 집행위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LNG, 재생에너지 등 대체 방안 모색 |
| 독일 | 2.21. | [석탄] 독일 바이에른주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졸링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종료 : 독일의 에너지 전환 및 2045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 |
| 루마니아 | 2.17. | [에너지] 에너지부, 에너지 가격 상한제 유지 계획 발표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상한제 및 가스요금 상한제 연장 계획 |
| | 2.25. | [천연가스] 루마니아 에너지 기업 OMV 페트로롬(OMV Petrom), 넵툰 딥(Neptun Deep) 흑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시추 작업 개시 예정 |
| 브라질 | 2.12. | [석유] 룰라 대통령, 브라질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에 아마존 하구 석유 시추 탐사에 대한 환경허가 조속 승인 촉구 |
| | 2.18. | [석유] 정부, OPEC+ 참여 발표(2.18.) |
| 칠레 | 3.5. | [풍력] 칠레 발전기업 콜분(Colbun) 칠레 최대 풍력발전소 Horizonte 프로젝트 준공(3.20.) 예정 발표: 연간 약 2,450GWh 전력 생산 가능 |
| 호주 | 2.25. | [원자력] 연방하원 원전 조사 특위, 호주 내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중간보고서 발간 : ▲ 원전 도입 기간 ▲ 원전 보급 비용 등 관련 의견 제시 |
| 베트남 | 2.19. | [원자력] 국회, 닌투언 원전 프로젝트 건설 투자를 위한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에 대한 결의안 채택 |
| 인도네시아 | 2.20. | [팜유] 팜유 및 관련 상품 수출물량(2025년 1월 기준) 약 127만 톤으로 전월 대비 23.0% 급락 |

온라인 다운로드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게시판

https://www.mofa.go.kr/www/brd/m_26799/list.do

경제안보 Review - 메일링 서비스 신청

cesfa@mofa.go.kr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CESFA, Center for Economic Security and Foreign Affairs)는
공급망, 첨단 기술, 전략 산업 등의 주요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필요한 정책 분석과
국내외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Review는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 발간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민관합동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지의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